2026-01-20

Economy Brief

그린란드 사태, 당분간 아시아 증시가 안전지대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의지는 잠잠해지던 관세 리스크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어 금융시장과 경기사이클 측면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높이고 있음

그린란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유럽은 물론 미국 금융시장 불안 혹은 변동성 확대 요인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잠잠하고 반도체 랠리 중심지인 아시아 증시가 그린란드 사태의 안전지대 역할을 할 것임

그린란드 사태, 이념보다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중시 정책의 또 다른 결과물

당사의 지난 1월 5일자 보고서(트럼프 2기 2년차 이슈와 리스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권2기 2년차를 맞이한 트럼트 대통령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내외 행보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분위기다. 연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상징어가 된 'FAFO'에 기반한 '돈로주의' 정책 기조는 지정학적 불안감 고조는 물론 무역갈등 마저 재차 소환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의지는 잠잠해지던 관세 리스크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어 금융시장과 경기사이클측면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군대를 파견한 유럽 8개 국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에 대해 EU(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측도 맞대응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EU측이 검토 중인 보복 카드로는 지난해 미국과 EU간 무역협상 타결로 보류된 930억 유로의 보복 관세 패키지 시행과 더불어 통상위협 대응조치(ACI)이다. 통상위협대응조치(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및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물론 미국-유럽 양측이 그린란드를 문제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돈로주의에 입각해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안보우산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나토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그린란드 합병을 강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대내외 비난 여론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 합병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연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대내외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린란드 합병에 대해서는 공화당내에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합병이 강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더욱이 중간선거 이전까지 생활물가 안정 등 경기를 관리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 EU와의 무역갈등 재점화가 EU 경기 둔화와 함께 미국 경제와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악의 경우 유럽 주요국이 경제적 보복 카드로 보유 중인 미국 국채 매도에 나설 경우 미국 금융시장이 받게 될 타격도 증폭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 밖에도 대법원에서 만약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카드가 일시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 사태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행보를 보면 동맹보다는 경제적 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즉, 과거와 달리 이념적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기 보다는 철저히 미국 경제와 안보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고 동맹국도 경제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관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예상외로 그린란드 사태가 장기화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린란드 사태, 당분간 아시아 증시가 안전지대

그린란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유럽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의 불씨가 생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돈로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의지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사적 카드를 배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그린란드 사태는 단기적으로 유럽 증시 불안 요인이자 경기 둔화 리스크도 작용할 수 있다. 그린란드 사태가 미국 경제에 당장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미-유럽간 무역갈등이 확산된다면 당연히 미국 경기와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뜩이나 불안한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 리스크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 관세 리스크 재부각이 안정 추세를 찾아가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수 있고 EU와의 무역갈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경제정책, 예를 들어 강력한 금리억압 정책 시행 등이 오히려 재정 및 물가 리스크를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관세 리스크 혹은 무역갈등은 미국-EU간에 제한된 리스크라는 점에서 지난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및 대만에 초점을 맞춘 상호 관세 리스크와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을 위시한 주요 아시아 증시가 글로벌 반도체 랠리를 견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1. 그린란드 사태 이후 유로화가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 가격 상승폭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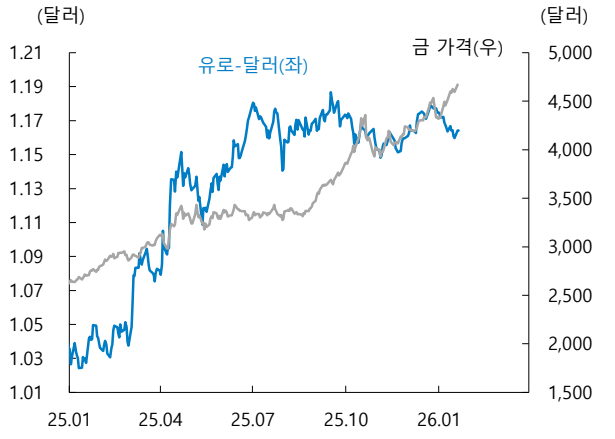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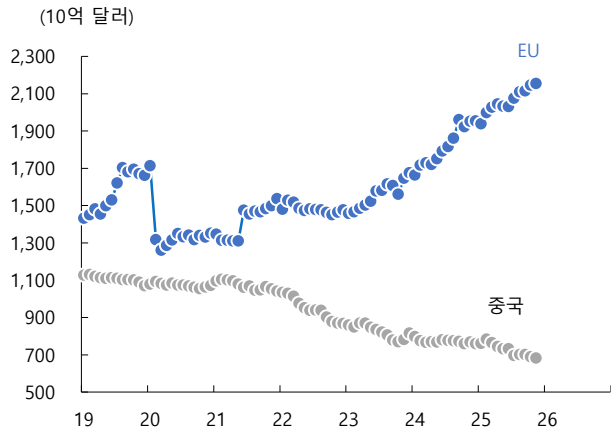


그림2. EU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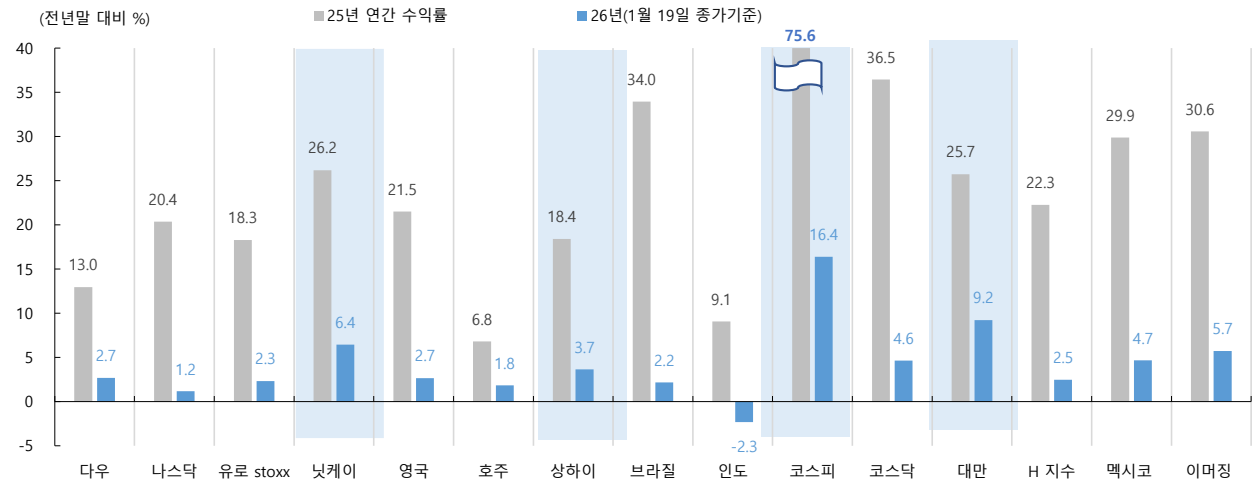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지난해 주요 유럽증시가 상승했지만 무역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 유럽 주식은 25년초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블룸버그 자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지난해에 이어 연초에도 코스피지수 등 주요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그린란드 사태로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강화될 수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